사람생각! 소통의 공간! 행동하는 지성!

할말은 한다 8호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홍세나 전화/920-5159

1987년 태초의 열정과 눈물로 문을 열었습니다. 1997년 10살, 패기로 힘찬 도약을 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2007년 20살, 빛나는 청춘으로 튼튼하게 노조를 지켜내었습니다. 2017년 30살, 그동안 함께 해주신, 함께 해주실 분들과 함께 합니다.
10월 25일, 보고 싶었던 얼굴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향수를 되새기는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십시오.

♥ 창립 30주년 위념식 ♪ - 10월 25일(수) 오후 6시 유광사홀(의과대학 본관 2층, 안암병원 장례식장 맞은편)

♥ home coming week~♪ - 30주년 위념 주간 행사 안내

10월 23일(월)	10월 24일(화)	10월 25일(수)	10월 26일(목)	10월 27일(금)
kumclu history <역사속으로>사진전	30주년 기념 영화제 (병원별 상영시간 상이)	30주년 기념식 안암병원 일일호프 (추후공지)	구로병원 일일호프 (추후공지)	안산병원 일일호프 (펀비어킹 중앙역점)

♥ 30주년 주인공은 나야 나~♪ - 30주년 위념 조합원 참여 행사

사행시 대회	▲ 노동조합 ▲ 고대노조로 사행시를 지어 각 병원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1~3등에게는 어마어마한 상금이 있을지도? (기념식에서 받아가세요)
조합원 동영상	생일축하 노래, 막춤, 편지낭독, 구호제창 등 모두 OK~~ 담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1~3등에게는 어마어마한 상금 /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피자 한 판 쏩니다!!

돈보다 생명을

43호 2017년_10월_11일_수요일

발행: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bogun.nodong.org

보건의료노조

서울 을지대을지병원 · 대전 을지대병원지부

10/10부터 전면파업 돌입

타 사립대병원 임금 60%수준... 임금격차 해소 최대 쟁점

보건의료노조, 10/17 산별노조 차원 총력투쟁 전개

10 / 10 파업 1일차 출정식

10 / 12 을지 파업 승리를 위한 서울본부 투쟁문화제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대전)와 을지대학교을지병원지부(서울)가 10월 10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추석연휴기간 동안 대화와 교섭을 통한 타결을 모색해왔지만, 10월 9일 최종교섭에서 사측이 타 사립대병원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진전된 안을 내지 않음에 따라 결국 파업에 돌입했다.

을지재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백억 비축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의 임금수준이 타 사립대병원에 비해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도 을지재단측이 성실하게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을지재단의 경영상태가 나빠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다. 그동안 매년 임금을 조금씩 밖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자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엄청나게 쌓여있다. 저임금구조와 낮은 인건비 비중, 낮은 임금인상률로 인해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각각 570억 원과 422억 원씩, 보유자금을 각각 2000억 원과 278억 원씩 비축하고 있다.

재단측, 직원 존중 않고 전근대적 노사관계 강요 파업 없이 타결할 수 있는데도 끝내 을지재단 사측이 파업을 유도한 결정적 원인은 바로 노동위원회와 노동부, 수많은 을지 가족들과 심지어는 사측 관계자조차도 임금격차 해소에 공감하는데도 재단측이 합리적 결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을지재단측이 직원을 존중하지 않고 모범적 노사관계를 만들려는 의지 대신 부당한 방법으로 직원들을 쥐어짜고 전근대적 노사관계를 강요하려는 낙후한 노사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서울본부 투쟁문화제 진행 / 17일,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예정

고대의료원지부 을지병원 지부 투쟁승리를 위해 연대 투쟁 참가하기로

우리지부는 보건의료노조 산별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 12일 서울본부 주최로 진행한 투쟁문화제에 연대투쟁을 진행했으며 17일 서울을지병원에서 예정된 <을지재단 규탄!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또한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무노무임을 결의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대의 뜻을 모아 투쟁기금을 전달하기로 했다.